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9차 회의

2004. 3. 15.

#1. 참가단위 확인

문대, 이과대, 총학, 신대, 생과대, 총여.

(법, 공, 72, 사)

#2. 화장실 신문, 여휴 사업

지난 시간에 단대별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성뿌연 화장실 신문 게시와 여휴 사업이 이야기됐습니다. 결정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봅시다.

- 1) 화장실 신문 단대별로 할 것인지, 연성뿌연이 함께 할 것인지. 한달에 한번, A4 12장.
- 2) 연성뿌연에서 제작한다면 글을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지. 연성뿌연 10개 활동
- 3) 주제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 4) 여휴 생리대 비치 계획 - 이과대 비치.(생과대, 진통제).
학생회비로 구입.

이제 정말 3월 중순입니다. 새터에서 오티에서 신입생들 만나고 새터 내규 홍보하느라 어수선하기만 했던 새 학기 공기가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듯 하죠.

연성뿌연도 이제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2003 연성뿌연이 2월 새터 기간에 반짝 활동하다가 단대별 주체들의 참여율 저조로 무산되어 버렸던 것에 비하면 2004 연성뿌연은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을 담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 그 무수한 가능성 중 몇 가지를 우선 제안합니다.

#1. 학칙개정/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

새터 내규 홍보가 2월의 집중 사안이었다면 학자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에는 학교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을 집중 사안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학칙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은 '단대 별 선전'입니다. 총여학생회에서 집중적으로 선전과 교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 단대 속으로 파고들어 선전을 진행하는 것은 각 단대의 여성주체들이 맡아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 pc쓰기/자보 게시/과반, 학회 별 교양/서명운동

여성주체 움직임 중요!

시명판, 색깔 있는 것 (통일성)
반방 동연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총여회기부터 시작.

#2. 연성뿌연 세미나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연성뿌연 자리에 모이긴 했지만, 당장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 지,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연성뿌연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당장의 새터 때문에 다들 짬이 없으셨죠..) 그래서 일단 세미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각해 봐야할 것들:

우선 5시!

- 회의시간(한 시간 안에 세미나와 회의를 모두 진행하기란 무리죠..)

- 커리큘럼: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중 『성폭력운동사』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성폭력을 다시 쓴다』

- 일정: 3월 22일, 3월 29일, 4월 12일. 그 이후엔 어떻게 할까요.

주인: 서명환, 박사문.

서명환이 목격증기.

//

성폭력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인 김중기 교학부총장은 성폭력에 대한 지각없는, 비민주적인 대책위 운영에 책임지고 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지난해까지의 성폭력대책위원회 회의 자리를 살펴보면 이미 명시되어 있는 학칙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되는 비민주적 행태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정 되지 않은 현재의 학칙에도 성폭력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조항으로 '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절 성폭력 대책위원회, 제13조 (회의))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실제 지난 해 열렸던 대책위원회 회의 자리에서는 단 한번도 의결이 진행된 적이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대책위원장의 결정이 대책위의 결정으로 관철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대책위원장이 '바쁘다고 회의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대책위원장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함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독단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최소한의 필요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책위원장 개인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속전속결로 회의를 진행하기를 요구하는 모습은, 대책위원장이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대해 갖고 있는 안일하고 경솔한 태도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또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는 학생위원과 교수위원은 동등한 대책위원의 자격을 학칙 상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위원들은 교수-학생 간 권력 관계 속에서 학생위원들을 대합니다. 학생위원들의 말은 '아직 뭘 잘 모르는 학생의 말' 정도로 치부되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폭력 대책위의 위원들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의 반성폭력 학칙에는 성폭력 사건을 다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피해자 보호' 원칙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대책위원들이라 보니, 그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의지와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의 대책위라면 과연 학칙을 제대로 개정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설령 학칙을 개정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개정안을 제대로 지킬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성뿌연은 대책위원장 사퇴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 인사에 있어 직접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책위원들을 각성시키는 방법은 학생들이 성폭력 대책위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없는, 비민주적인 운영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제대로 운영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말입니다. 물론 대책위원들의 물지각한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감시와 분노가 대책위원장 사퇴라는 단발적인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대책위원장을 사퇴시킴으로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는데도, 4월 총장 선거 이후 새로운 대책위가 구성되어 또 다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인다면 대책위원들에 대한 학생들의 지탄과 경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illegible]